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6/3 월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창 2:2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창 1:27-28

27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여라.”

창 2:3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히 2:6-8

6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7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8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6/4 화

신 12:9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평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히 4:8-9

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계 20:1-4, 6

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2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 년 동안

3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4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6/5 수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요 4: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 26:39, 42

39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42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엡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6/6 목

출 31:17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 31:12-16, 18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시이기 때문이다.

14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15 육 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일이며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니,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18 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두 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행 2:13-14

13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군.”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으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6/7 금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10:6, 11**

6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8:3-4, 10, 16**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갈 6: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6/8 토**

**히 4:16, 2**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2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엡 6: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창 28:12-19**

12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13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14 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15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를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17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뺨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19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벵엘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요 1:51**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9 주일**

**히 3:7-19**

7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9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여 떠보았고, 사십 년 동안이나 나의 일을 지켜보았다.

10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대하여 언짢아하며 말하였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11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3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은 매일 서로 권유하여,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14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15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16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격노하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17 또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를 언짢아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18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찬송: 746 (英)**